

우당탕탕 신입들의 따뜻한 겨울나기

2024. 1. 23.



쿠팡 동탄센터 1년 차 사원 박용주, 2년 차 사원 주유진 님

쿠팡 고객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.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는가 싶다가도 어김없이 한파가 찾아오는 동절기입니다. “밤새 눈이 내리고 강추위가 찾아와도 어김없이 아침 배송을 해주는 쿠팡이 참 고맙다. 우리가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나 싶다”라고 얘기해 주시는 고객님들의 응원에 늘 감사드립니다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쿠팡 물류센터의 따뜻한 겨울나기 함께 보실까요?